

“트럼프 행정부, 北 위성발사시 대응 논쟁 중”

CNN 보도…“강경 노선이나 외교적 접근이나 선택 강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무산된 후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 결정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CNN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NN은 회담이 결렬된 이후 최근 몇 주간 양국 간 발인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위성 발사가 트럼프 행정부에 판돈이 크게 걸린 새로운 딜레마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북한의 위성 발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미 협상을 위태롭게 할 강경 노선과 외교적인 단계적 접근 기조 가운데 선택을 강요할 것이라고 CNN은 전망했다.

미국 관리는 트럼프 행정부가 인공위성

과 레이더 등을 통한 지속적인 정보 수집을 통해 여러 지점에서 감시 활동을 지속하고 있지만, 북한이 다음 단계에서 무엇을 할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정보는 현재로서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최근 북한의 서해 발사장에서 움직임이 관측돼 북한이 위성을 발사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CNN은 만일 미국이 북한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응할 경우 이중적 태도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올해 초 이란이 위성을 발사하자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의 위반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때문에 북한이 위성을 발사했을 때

다른 나라와 동일한 수준으로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논쟁이 일고 있다고 CNN은 전했다.

그러나 일부 관리들은 북한에 대한 강경 대응은 외교적 협상을 위태롭게 할 수 있어 이 같은 비판은 감수할 만하다고 여기고 있다고 CNN은 전했다.

북한도 위성 발사가 얼마나 도발적일 수 있는지 또 북미 협상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고 있으며, 정보기관 역시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을 최선으로 본다는 점을 믿고 있다고 미국 관리는 말했다.

이 관리는 또 북한의 몇몇 발사장에서 관찰된 움직임은 미국과의 대화에서 지렛대를 얻기 위한 노력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위성 발사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직접 연결되지 않아 다른 미사일이나 핵실험보

다는 미국의 의심을 덜 수 있다고 CNN은 분석했다.

그러나 핵 프로그램과 아주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전문가들을 주장한다. 북한의 위성 발사 시도를 독자적인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을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폼페이오 장관과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핵과 미사일 시험은 북미 외교에 자살행위라 될 수 있다고 분명히 말했지만, 북한이 위성 발사 시에 대한 대응책은 아직 밝히지 않은 상태다.

CNN은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로서는 북한에 대해서는 관망세를 취하는 것처럼 보이며, 상황이 악화했을 때 미국의 대응은 북미 간 외교적 해결책이 가능한지에 대한 가늠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연합뉴스

시속 400만km 돌진 중성자별

NASA 우주비행센터 카시오페이아자리서 관측

최신성 폭발 뒤 남은 펄서(Pulsar·자전 중성자별)가 시속 400만km 가깝게 우주 공간을 가르며 “대포알처럼” 돌진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이는 지구에서 달까지 단 6분 만에 통과할 수 있는 속도다.

미국항공우주국(NASA) 고다드우주비행센터에 따르면 국립천문대(NRAO) 과학자 프랭크 쉰젤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은 지구에서 약 6천500광년 떨어진 카시오페이아자리에서 관측한 펄서 ‘PSR J0002+621’ 관측 결과를 미국천문학회(AAS) 고에너지 천체물리학 분과회의에서 발표했다.

펄서는 대형 별이 초신성 폭발로 붕

괴한 뒤 생기는 초고밀도의 급속히 회전하는 중성자별을 지칭한다. 회전할 때마다 짧고 규칙적인 주기로 펄스 형태의 전파를 방출해 맥동전파원(脈動電波源)이라고도 한다.

J0002는 초당 8.7회 회전하면서 매번 감마선을 방출하는 것으로 관측됐다.

연구팀은 NASA의 페르미 감마선 우주망원경과 전파망원경 27대를 Y자 모양으로 배열한 국립과학재단의 대형 전파간섭계 ‘칼 G. 안스키 초대형배열(VLA)’을 이용했다.

J0002는 지난 2017년 ‘아인슈타인 @홈’이라는 시민과학자 참여 프로젝트를 통해 처음 존재가 확인됐다. 시민과학자들의 컴퓨터를 연결해 페르미 우주망원경의 감마선 자료를 처리해 총 1만년이 넘는 시간을 분석했

다.

/연합뉴스

아베 ‘與 돼지해 징크스’ 깰까 한달 통일지방선거 일정 개시

아베 신조 일본 내각의 올해 국정운영 성패를 가를 첫 관문인 통일지방선거 일정이 오는 21일 개시된다.

20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홋카이도와 오사카 등 11개 도부현(道府縣公영자치단체) 지사 선거가 21일 고시되면서 한 달 간의 통일지방선거 일정이 시작된다.

이달 24일에는 6개 정령시(인구 50만 이상 도시) 시장 선거, 29일에는 41개 도부현과 17개 정령시 의회 선거가 각각 실시된다. 통일지방선거의 전반부 투표는 내달 7일 실시된다.



인도 다르와드 건물 붕괴 수십명 매몰 19일(현지시간) 인도 남서부 카라나타카주(州) 다르와드 지역의 건물붕괴 사고 현장. 구조대원들이 인명 구조 및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날 다르와드에 있는 5층 건물 신축 공사현장이 무너져 최소 2명이 숨지고 수십명이 매몰됐다. /연합뉴스

이달 9일부터 일부 중의원 선거구 보궐선거, 일반 시장선거 등이 잇따라 고시돼 같은달 21일 후반부 투표가 실시된다.

통일 지방선거라는 ‘전초전’을 거친 뒤 7월에는 참의원 선거가 예정돼 있다.

이처럼 복잡한 선거 일정은 통일지방선거가 4년에 한 번, 참의원 선거가 3년에 한 번 열리면서 12년에 한 번 ‘돼지해’에는 선거가 겹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여야 모두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통일지방선거의 향방에 촉각을 세울 수밖에 없다.

아베 총리로서는 국정 운영뿐 아니라 ‘정치적 과업’으로 내세운 개헌 추진의 동력 확보 여부를 가르는 갈림길에 섰다고도 할 수 있다.

그는 헌법 9조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수차례 밝혔다.

하지만 돼지해에 여당은 통일지방선거의 피로감으로 인해 참의원 선거에서는 참패하는 경우가 많았다.

2007년 돼지해에는 이런 징크스 때문에 제1차 아베 내각이 침몰했다. /연합뉴스

인니, 中에 103조원 일대일로 사업 무더기 제안

항구·산단·발전소 조성 등 총 28개 프로젝트 제시

인도네시아가 중국의 대외경제 프로젝트인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에 동참해 103조원 상당의 인프라 건설사업을 중국 투자자들에게 제안하기로 했다.

20일 자카르타포스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루후 판자이탄 인도네시아 해양조정 부 장관은 전날 자카르타에서 열린 일대일로 관련 포럼에 참석한 뒤 20~21일 발리에서 개최될 회의에서 중국 투자자들에게 28

개 프로젝트를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제안될 프로젝트의 전체 규모는 911억 달러(약 103조원)”라면서 이 중 2~3개 프로젝트는 그 자리에서 계약이 성사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가 제안할 프로젝트는 북(北)수마트라, 북(北)칼리만탄, 북(北)술라웨시, 발리 등 4개 주에 항구와 산업단지, 발전소, 제련소, 관광지 등을 조성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4개 주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지역중합경제회랑’으로 선정한 지역이다.

토머스 램봉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 장관은 “이 4개 지역은 중국 투

자자들을 끌어들이는 나름의 강점을 갖고 있다”면서 “예컨대 북수마트라는 교통의 요지인 플라카 해협과 가깝고 팜오일 산업의 허브이다”라고 말했다.

중국 투자자들은 새로 제안되는 28개 프로젝트와 별개로 이미 87억 달러(약 9조8천억원) 상당의 7개 사업에 대해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루후 장관은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이유 기술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 현지인 노동자를 최대한 고용해야 하고 기술이전이 이뤄져야 하며 해당 사업이 인도네시아 국내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뉴질랜드 총격범, 제3의 공격 저지당해”

닷새만에 희생자 첫 장례

뉴질랜드 이슬람사원 2곳을 상대로 한 무차별적인 총기 난사로 50명을 살해한 용의자는 당시 또 다른 공격을 계획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고 현지 경찰이 밝혔다.

마이크 부시 뉴질랜드 경찰총장은 20일(현지시간) 호주 국적의 용의자 브렌던 태런트(28)가 당국에 제지되기 전 제3의 공격을 위해 이동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했다고 CNN 방송이 보도했다.

부시 총장은 이날 추가 공격을 위해 이동하던 용의자가 저지당한 것으로 “절대적으로”(absolutely) 믿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목숨들을 구할 수 있었다”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총격을 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자세한 설명은 피했다. 이와 함께 부시 총장은 전체 사망자 중 21명의 신원을 확인하고 시신을 유족에게 넘겼으면서 희생자 대다수에 대한 신원확인 작업은 이날로 종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뉴질랜드 당국은 전체 사망자 중 5명의 이름을 이날 처음으로 공개했다. 이들 중 4명은 뉴질랜드 국적이었지만 한 명은 오스트리아였다.

한편 테러 발생 후 닷새가 지난 20일에는 수백명의 추모객이 모인 가운데 처음으로 장례식이 치러졌다고 AP 통신 등이 전했다.

/연합뉴스

모잠비크 정부 “사이클론 사망자 200명 넘어”

지난주 사이클론(cyclone) ‘이다이’가 휩쓴 모잠비크에서 19일(현지시간) 현재 사망자가 200명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필리프 뉴시 대통령이 밝혔다.

뉴시 대통령은 이날 사이클론이 처음 상륙한 동부 항구도시 베이라에서 긴급 각료회의를 한 뒤 “지금까지 집계된 사망자 수가 200명을 넘었으며, 약 3만5천명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AFP통신 등이 전했다.

뉴시 대통령이 이날 밝힌 집계치는 전날 피해 지역 상공을 비행한 뒤 한 대국민 연설에서 사망자를 1천명 이상으로 추정했던 것보다는 크게 줄었다.

모잠비크 정부는 이다이로 피해를 본 사람이 최대 60만명에 이를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모잠비크와 함께 이다이가 강타한 짐바브웨에서도 사망자가 약 100명으로 집계됐다고 짐바브웨 정부 관계자가 밝혔다. 그러나 사망자 수는 최대 3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이 관계자는 전했다.

유엔에 따르면 아프리카 남부를 습격한 사이클론으로는 최근 수십년만에 가장 강력한 이다이의 영향으로 모잠비크 집경국민 말라위에서는 100만명이 피해를 봤으며 이 가운데 8만명 이상이 이재민 생활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투자 가치 좋습니다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입야, 투자적합
- 22600평중 지분 200평
- 대학교수, 건설회사, 세무사, 간호사도 매입함
- 도시지역, 자연녹지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 매매 - 5000만원

문의. 010-6834-7400

신창동 근린상가

-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1174번지, 가도빌딩 (진흥고, 전남공업고 옆 사거리 코너 건물)
- 대지지분 52평, 건물 170평(실100평)
- 4층중 2층 201호 전체, 준주거지역
- 주위에 고등학교/대학교 역사문화공원 단독주택 아파트 상업용건물등 혼재, 위치좋은
- 보증금1억에 월400만원 임대가능
- 감정/시세-11억

급매8억(대출3억5천만원 포함)

문의. 010-3605-5000